

9. 때가 좋던 나쁘든 말씀을 전파하라(딤후 4:1~2)(내 책 p.166)

성산 남 육진 목사

Διαμαρτυρομαι ἐνώπιον τοῦ θεοῦ καὶ. Χριστοῦ Ἰησοῦ τοῦ μελλοῦτό κρινεῖν ζωντὰ καὶ. νεκροῦ, καὶ. τῆν ἐπιφανεῖαν αὐτοῦ καὶ. τῆν βασιλειαν αὐτοῦ 2 κηρυξον το.ν λο.γον(ἐπι.στηθι εὐκαι.ρῶ ἀκαι.ρῶ(ἐλεγχον ἐπιτι.μησον(παρακα.λεσον(ἐν πα.σῇ μακροθυμ.ᾶ καὶ. διδαχῇ)

Διαμαρτύρομαι ‘엄히 명하노니’ 보다 ‘내가 증거 하노니’

※ 동사를 철저히 분석하라

① 직설법. ② 현재. ③ 중간태. ④ 단수. ⑤ 1인칭.

※ 배치법 주의하라 문두에 와서 강조, 대문자로 시작해서 강조, 2중 강조하고 있다.

※ 단어 분석하라 Δια (through,인 하여) + μαρτύρομαι (<μάρτυς witness 증거)

아래 4가지 근거를 인하여 증거 하게 되다

①하나님 앞에서 ② 죽은자와 살아 있는 자를 심판하려 오실 그리스도 예수(앞에서)

③ 그의 나타내실(앞에서) ④그의 나라(앞에서)

선포하다 그 말씀을

κήρυξον τὸν λόγον,

a.1. .능.< κηρύσσω.

-루존 **톤** 로곤

proclaim the word ,

-전파하라 말씀을

위에 서라! 쉬울 때 어려울 때

ἐπίστηθι εὐκαιρῶς ἀκαιρῶς,

2.a.명.< ἐπίστημι.

에Π스테-디 유-카이로오스 아카이로-스

be attentive seasonably unseasonably

항상 힘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 되게 하라 위에 명예를 겉으로 불러라!

ἐλεγχον, ἐπιτίμησον, παρακάλεσον

a.1.명.< ἐλέγχω. a.1.명.< -τιμάω. a.1.명.< καλεῶ.

에Λ렝존 에피티메-손 파라카레손

reprove admonish exhaust ,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안에 모든 오래 견디라 & 가르침에

ἐν πάσῃ μακροθυμίᾳ καὶ διδαχῇ.

엔 Π세- 마크로두미아 카이 디다케-

With all longsuffering and teaching

으로 범사에 오래참음 과 가르침

κήρυξον

ἐπίστηθι

① ἐλεγχον

② ἐπιτίμησον

③ παρακάλεσον

전파하라 - 그 말씀을 딤후4:2

자리를 지켜라 - 때가 좋든 안 좋든

① 밝히 드러내고 ② 칭찬을 하고

인내와 가르침으로 ③ 용기를 북돋고

2016. 5. 1. 5:1~8 자기 가족을 돌보라

1 Πρεσβυτέρω μὴ ἐπιπλήξῃς ἀλλὰ παρακάλει ὡς πατέρα, νεωτέρους ὡς ἀδελφούς ,
1 An older man Do not rebuke but exhort as a father, younger men as brothers,

2 πρεσβυτέρας ὡς μητέρας, νεωτέρας ὡς ἀδελφὰς ἐν πάσῃ ἀγνείᾳ .
2 older women as mothers, younger women as sisters with all purity.

3 Χήρας τίμα τὰς ὄντως χήρας.
3 Widows honour the really widows.

4 εἰ δέ τις χήρα τέκνα ἢ ἕκγονα ἔχει,
4 But if any widow children or grandchildren has ,

μανθανέτωσαν πρῶτον τὸν ἴδιον οἶκον εὐσεβεῖν
let them learn firstly the own household to show piety to

καὶ ἀμοιβὰς ἀποδιδόναι τοῖς προγόνοις·
and requitals to return to the(ir) forbears;

τοῦτο γάρ ἐστιν ἀπόδεκτον ἐνώπιον τοῦ θεοῦ.
for this is acceptable before - of God.

5 ἡ δὲ ὄντως χήρα καὶ μεμονωμένη ἤλπικεν ἐπὶ [τόν] θεόν
5 but the really widow and having been alone has set (her)hope in - God

καὶ προσμένει ταῖς δεήσεσιν καὶ ταῖς προσευχαῖς νυκτὸς καὶ ἡμέρας,
and continues in the petitions and the prayers night and day;

6 ἡ δὲ σπαταλώσα ζῶσα τέθνηκεν .
6 But the living wantonly living has died .

7 καὶ ταῦτα παράγγελε, ἵνα ἀνεπίλημπτοι ᾶσιν.
7 and these things change thou, in oder that without reproach they may be.

8 εἰ δέ τις τῶν ἰδίων καὶ μάλιστα οἰκείων οὐ προνοεῖ,
8 but if anyone the own and especially [his] family provides not [for],

τὴν πίστιν ἥρνηται καὶ ἔστιν ἀπίστου χείρων.

완직 ἀρνέομαι
 the faith he has denied and is an unbeliever worse[than]. 부활의 신앙
 고린도 전서 15장 50~57절 성산교회 남옥진 목사

15:52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 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 되리라
 15:53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 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드.

세계적인 명절이고 그리스도교의 최고 축제인 부활절이 금년에는 3월 27일 주일이다. 부활절의 기준은 24절기 중 춘분직후 보름달이 지나 첫 주일이 되는 주일이 부활절이다. 이 날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이다. 밤낮의 길이가 똑 같은 춘분에서 낮이 길어지기 시작하는 계절에 달이 최고로 밝은 보름이 지난 첫 주일이 부활절이다. 해와 달이 밤과 낮이 최고로 밝은 주일날에 예수께서 무덤에서 다시 살아 나셨다. 이날은 구약성경에 나오는 유월절하고 맥을 같이 한다. 이집트의 노예생활에서 해방된 날이기도 하다. 육신이 엄매인 노예에서 자유 함과 육신의 죽음에서 자유 함은 같은 맥락이다. 그러므로 부활절이야 말로 그리스도교인의 최고 축제다.

1.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어떠했는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다른 제자들 보다 1주일 늦게 접한 그의 제자 도마는 손가락으로 못 자국에 확인과 손으로 옆구리에 창 자국에 넣어 확인 해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고 할 때에,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네 손가락을 내 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고 말씀했다. 만지고 넣어 볼 수 있는 부활하신 영체 이다.(요20장25,26)
 뿐만 아니라 문이 닫혀 있는데도 그냥 방안 가운데로 들어오셨다. 부활의 몸이니까 방문도 무덤의 문도 그를 막을 수 없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이 보는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하셨다. 하늘로 승천하시는 광경이다. 부활한 영체는 못 자국 창 자국이 보여 확인되었고, 방문이 닫혔는데도 그냥 들어오셨고, 제자들과 성도들이 보는데서 공중을 향해 이동 하셨다.

2. 세인들이 믿는 내세관은 윤회다.

70년대에 고등교육을 받고 서울특별시에서 사면서 관참은 사모님이신데도 이제 죽으면 저 세상에서 다시 태어 날 텐데; 그 때에 소가 될까? 개가 될 가? 돼지가 될까? 무슨 동물로 태어 날 줄을 알고 있고, 그렇게 무슨 동물로 다시 환생할 것에 대한 당연한 태도다.
 신앙이란 무섭고, 굉장한 사조에 묶여 있다.
 옛날 말에 씨 도둑질은 못한다고 했다. 사람의 DNA는 사람이지만 사람의 DNA가 비슷한 원숭이로, 올챙이는 소나 개로 환생되지 않는다. 그런데 아마도 대한민국 국민의 1/2이상은 죽고 다시 환생할 때 다른 주로 12지 간에 나오는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로 썩으로 저세상에서 태어 날 줄 알고 있고, 그래서인지 몰라도, 그토록 죽음을 거부하고 연장하고, 미루는 모양이다.
 내세관이 분명히 서 있지 않으면 산소 호흡기를 비롯해서 온갖 가짜 생명 줄을 달고 버틴다. 부활절을 맞아 분명한 내세관과 사생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살아감이 이 시대 최대 관건이다. '웰빙 시대다', '백세장수시대다'란 슬로건 속에 현실적으로 잘 살아야만 하고, 오래 살아야만 한다고 하니 "부활이란 소망이 없는 이 시대" 한 없이 측은 하기도 하고, 고령화 시대에 모든 것을 돈으로 만 해결 되는 줄 알고 살아가는 현실에 분명한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우리를 부활케 하기 위한 첫 열매로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음을 전하여, 듣고 믿도록 복음을 증언해야 할 때가 바로 이 시대 지금이라 생각 됩니다.

3. 신약성경 27권 중 1/2를 쓴 바울은 부활의 증언자이었다.

철학의 도시 고도(古都) 고린도에 보낸 편지 제1편 15장에 그는 논리 정년하게 철학적으로 사실적으로 경험함을 토대로 '고린도전서15장=부활 장'이란 등식이 성립되는 증언을 하고 있다.

- 1) 1~11절 그리스도께서 부활 하셨고, 바울 자신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증언하고 있다.
- 2) 12~19절 죽은 자의 부활은 예수께서 다시사심으로 판명 되었으며, 부활은 믿는 이들에게 구원의 보장이요, 소망의 정점임을 밝히고 있다.
- 3) 20~28절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의 세력을 완전 정복한 승리의 쾌거임을 증언한다.
- 4) 29~34절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삶의 활력소와 인생의 목표가 되고, 의를 행하고 죄를 멀리 할 수 있는 능력이다.
- 5) 35~49절 죽은 자의 부활은 곡식의 낱 알갱이를 심어 식물을 거두듯, 동물의 수정을 통해 그 형체를 얻듯 사람도 육체인 몸을 인해 영적인 부패되지 않는 영체를 얻는다.
- 6) 50~57절 우리가 100세 200세를 하더라도 이 육신과 피를 가지고 썩지 않는 영체를 이어 받을 수 없고, 죽음의 굴레를 벗어 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사망에서 승리를 가져 왔다.

끝으로 누가 그러면 어떻게 부활에 참여 할 수 있나?

요한 1서 5장 12절 예수를 믿는(가진)이는 영원한 생명(부활)을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다. 예수는 33세에 죽으셨고 33세에 다시 사셨다. 50세에 죽으셨다가 50세에 다시 사실 수도 있고, 아니 더 일찍 혹은 더 늦게 죽으시고 다시 사실 수도 있다. 그러나 33세에 다시 사시고 송천하심은 우리 모두 개개인의 인격의 기준이 33세이다. 아마 하나님께서 아담 이브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도 33세의 인격 인정 체격정도? 유추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너무 늙었으면, 33세로 당겨지고, 너무 어리면 33세로 연장되어서 완전한 성숙한 영체로 부활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하늘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궁극 구원이고, 소망이다. 이번 부활절을 맞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소망으로 새 힘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